

Lanxess, 대학생 영어 프리젠테이션 개최

Lanxess와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제1회 <랑세스-한경 프리젠테이션 챌린지>에서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4학년 김원진군 (Adonator팀)이 대상을 차지했다.



11월2일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에서 열린 제1회 <랑세스-한경 프리젠테이션 챌린지>는 글로벌 미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<더 나은 미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안>을 주제로 9개팀의 결선 참가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.

랑세스코리아 고제웅 사장은 “학생들에게 프리젠테이션과 글로벌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을 일깨울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. 앞으로도 랑세스는 교육과 인재육

성에 후원하는 사회적 기업의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 <고우리 기자>

<화학저널 2010/11/03>